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4월 6일(일) 제1535호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이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긴급구호 물품을 트럭에 싣고 있다.

부활하신 어린양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 (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벌써 5주 차 를 맞이한다. 5주차 주제는 '부활하신 어린양'이다. 4월 7일(월) '사망을 이기시다' (요 20:11~18), 8일(화) '다시 뜨겁게' (눅 24:13~35), 9일(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2~19), 10일(목) '가서 제자 삼으라' (마 28:16~20), 11일(금)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3~11)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40일 새벽기도회는 4월 18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양주아 성도(가정사역공동체)는 "이번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것을 결단했다"고 고백했다. 이주혁 성도(SNS공동체)는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40일 새벽기도회 이벤트와 홍보웹페이지(onnuri40.onnurichurch.com)를 운영하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 참석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40일어린양을바라보라) 하고, 게시글을 캡처해서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된다. 홍보웹페이지에서는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젯빛 산자락에 희망의 씨앗을!

온누리교회, 경북 산불 현장에 긴급구호팀 파견
경상북도 3개 지역에서 밥차 운영 및 구호품 전달

온누리교회가 경북 산불 현장에 긴급구호팀 (이하 경북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NGO 더멋진세상 고대선 실장(국제협력실)과 박성훈 전도사(여호수아청년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5개 공동체(SNS청년부, 여호수아청년부, 갈렙청년부, 허브대학부, 하늘대학부) 소속 청년 10명(이호준 형제, 김형진 형제, 이하용 형제, 김상훈 형제, 이진희 형제, 이기세 형제, 문성빈 형제, 노에스터 자매, 이정선 자매, 임다와 자매)으로 구성됐다<관련기사 4면>.

경북 긴급구호팀은 지난 3월 31일(월)부터 4월 4일(금)까지 경상북도 3개 지역에서 젯빛 산자락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구

호 활동을 했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과 청송군 진보면에서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대표: 김승원 목사)과 협력해 '희망밥차'를 운영했다. 하루 세 번 영양군 석보면 이재민 200여 명, 청송군 진보면 이재민 6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보나콤 공동체(대표: 강동진 목사)와 협력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대피소에 거주하며 불편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양말과 속옷, 수건, 트레이닝복을 전달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트레이닝복 2천여 벌을 지원(3천만 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경북 지역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에서 방문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큰 힘과 용기가 난다"면서 "도움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경북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열흘 동안 이어졌다. 의성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의 산불 피해 면적이 무려 4만8천 헥타르(ha)나 된다. 여의도 156배 면적이다. 소실된 주택 3,766채, 농작물 4천여 헥타르(ha),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가 불에 탔다. 이재민 3,318명, 사상자 82명(사망 31명, 중상 9명, 경상 42명)이 발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캠페인 '2025 사랑으로 함께'

CGN이 경상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과 교회를 지원하는 '2025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5월 30일까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 전액은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된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추후 CGN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CGN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2021년 미혼 한부모 가정,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캠페인을 했다. 올해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의 더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2025 회복축제 '온전함'

5월 14~16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및 선교관

2025 회복축제가 '온전함'을 주제로 막 오른다. 5월 14(수)~16일(금)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선교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4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을 할인해준다.

2025 회복축제 '온전함'은 14일(수) '마음 돌봄', 15일(목) '정신 치유', 16일(금) '영혼 회복'을 주제로 전문적인 강의가 이어진다. 고병인 교수(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채규만 교수(한국여성상담센터 이사장),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호선 교수(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류경숙 박사(강남GEM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박상미 교수(한국의미치료학교 부회장)가 주강사로 강의한다. 특순은 사랑챔버, 가수 범키, 온사랑합창단이 한다.

문의: 02-3215-3532



/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 미안마 선교사들' 안전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미안마 선교사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선교 본부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엄청난 지진으로 육로 이동이 어렵고, 통신이 두절 돼 소식 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여진이 계속돼 피해 복구도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한창욱 선교사(TIM)는 "여진이 계속돼 구조도, 피해 복구도 힘든 상황에 있는 미안마와 교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동시에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확실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임하는데 땅의 4분의 1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 다음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땅의 3분의 1에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제한 없이 땅의 모든 영역에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심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과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무너져 내리라”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두려움과 어린양의 진노 앞에 서는 두려움입니다. 그 진노 앞에 선 이들이 “누가 이 큰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큰 진노에도 견딜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심판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3절).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심판이 지연된 때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심판이 지연되고,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입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최후의 심판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인침 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려고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마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인지심은 신약에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지심입니다(엡 1:13~14). ‘이마’가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인지심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고후 1:22), 보증은 보증금입니다. 일부로써 전부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령의 인지심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성령의 인지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완전한 구원 강조하는 ‘14만 4천’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의 근거는 구약의 열두 지파 12와 신약의 열두 사도 12를 곱하면 144이고, 거기에 충만한 완전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수에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신 처소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작정하심과 실행하심은 그 어떤 영혼도 빼앗기지 않

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롬 8:38~39).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를 강조한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상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 이 악한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과 싸우는 군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군사로서 싸운다는 겁니다. 어린양 예수님처럼 순교함으로써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9절에서 17절까지는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 명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14만 4천 명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완전수로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전사가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닿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영원한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경배 드리는 큰 무리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큰 무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 언어와 백성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들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13~14절은 〈스가랴〉 3장을 회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옆에서 고소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정해진 의복을 입지 않으면 죽임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합당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린양의 보혈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고소 받는 근거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홍 빛 같은 우리 죄를 흰 눈같이 희게 해 주시으로써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목자 되신 어린양의 돌봄을 받는 이들입니다(15~17절).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양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경배한다’는 단어와 혼용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경험한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습니다. 어린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눈물 없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어디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눈물을拭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악과 싸우는 군사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네 가지 말을 타고 오는 진노와 심판을 우리도 겪습니다. 인내하며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창조질서

‘건강 되찾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

신앙(信仰)을 가진 기독교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집에 거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할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 또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정보)을 찾아보고,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이어져 마음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명제(命題)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따금 자연현상 또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일상적인 생각과 스쳐 지나가는 단상(斷想) 등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제한적 존재이다. 그래도 온 우주에 대한 창조질서와 인간 창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에 그 힌트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성경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매뉴얼(Manual)이고, 인간 창조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창조질서의 의미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무척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창조질서를 찾고, 창조질서에서 벗어나 오작동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례(case)가 기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창조질서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3절~31절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며 안식을 취하셨다(창 2:1~2). 하나님이 여섯째 날 자기 형상대로 사

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만큼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반은혜’만 주신 게 아니다. ‘특별은혜’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질서를 스스로 알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창조질서의 내용과 범위에서 행동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분을 부정하거나 알면서도 거부한다. 믿는 우리마저 주관적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곡과 시행착오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신앙인들이 인생의 항로에서 많은 풍파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최근 필자도 삶에서 창조질서를 알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2년 전, 딸의 사랑 어린 강권(強權)으로 오랜만에 건강진단을 받았다. 그럭저럭 정상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냈다. 그런데 우연히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던 의사 후배와 대화를 나눴다. 그 후배가 자신이 ‘당뇨 전단계’라서 식사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당뇨 전단계가 당뇨병으로 가면 모든 질병의 기저(基底) 질환이 되어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했다. 그제야 나도 당뇨 수치를 파악했더니 당화혈색소가 6.2%(당뇨 전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을 되찾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삶 속에서 창조질서의 패턴을 재정립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5.7%(정상 수치 기준)로 낮아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 체중도 7kg이 빠져서 옷 맴시가 난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임을 고백한다.



정영환 장로
(송파A공동체, 양재전도학교 및 브릿지33+담당)

특별기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

주일 아침이면 기독교인들은 1세기부터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예배당에 모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주장을 서로에게 선언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

이 주장을 마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는 식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진정 믿음에서 이렇게 선언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선언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 모두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상황에서 공적인 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을 표현한 것 이상이었으며, 모든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번 부활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이들은 한 나라의 기독교인만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 역시 선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 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몇 년째 부활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서 테러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위험

한 곳인 그곳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서신을 썼다.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점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서신서도 있다. <베드로전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과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에 직면한 예수님을 믿는 초기 성도들에게 쓰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가 로마 황제 네로 치하의 초대 교회 박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에서 기쁨의 서신의 배경이 감옥인 것처럼, 소망의 서신의 배경은 핍박이다.

절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새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베드로에게 소망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확신이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희망 사항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격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바뀌기를, 다음 선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러지기를, 대법원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중요한 사건을 판결하기를, 우리 팀이 대학농구선수권 토너먼트 경기에

서 살아남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소망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미 일어났고, 변하지 않을 상황에서의 소망이다. 이미 일어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소망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일 아침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할 이야기이다.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죽음은 패배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가장 진실한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부활절이 되면 늘 책 콜슨이 생각한다. 책 콜슨은 부활절 주일 아침마다 ‘담장 너머의 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다. 자신이 부활을 믿는 이유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멋진 설명을 해주었다. 해마다 책 콜슨의 이 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공유되며 진실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믿음의 드문 예가 되고 있다.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어떻게요?

12명의 남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 진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12명이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주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40년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나는 책 콜슨이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소망의 발을 굳게 딛고 이 시대 문화에 계속 관여할 것을 격려하고자 자주 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소망을 절망의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도에게 소망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시 선포하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다!”

/ 존 스톤스트리트(책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원문: breakpoint(20240329)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에게...

회개의 통로 ‘새사람사역팀’ 이순남 권사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회개의 통로 ‘새사람사역팀’의 이순남 권사다. 이 권사는 오랜 시간 옥에 갇힌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일대일 수료 예배에서 특순팀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왼쪽), 이순남 권사(오른쪽).



지 섬김을 이어온 이유가 있다. 그녀도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새사람사역팀에서 섬기며 깨달았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에 복음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처럼 재소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들도 반드시 거듭납니다.”

이순남 권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처럼 재소자들이 진짜 달라졌다. 역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매 순간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소자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소자들이 먼저 저에게 사과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9주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재소자 한 명이 제게 ‘올해 하반기에 1:1 사역을 신청할 테니까 다시 만나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재소자에게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웃으면서 작별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만나달라”는 재소자의 부탁에 이순남 권사가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자’고 답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늘 ‘지금, 이 섬김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헌신하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오는 이순남 권사가 자신의 기도제목들을 나눴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재소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72살입니다. 갈렙이 많은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새사람사역팀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헌신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의: 010-3242-8743(새사람사역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회개’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독교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일.’

1또 다른 사전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요한 회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새사람사역팀’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새사람사역팀이 재소자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재소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돕는다.

개인의 변화, 그것은 새 성전의 탄생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12개 교도소와 구치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소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른다.

그런데 새사람사역팀원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역으로 여기는 정서 때문이다.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역이다. 새사람사역

팀이 왜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왜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순남 권사가 설명했다.

“새사람사역은 엄청난 열매가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개인이 변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새 성전이 탄생하는 사역입니다. 수많은 재소자가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었던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새 성전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사람사역팀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이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회개의 통로로

이순남 권사가 새사람사역팀에서 섬기게 된 계기가 있다.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 결정적이었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다가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독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다른 곳으로 놓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았는데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모님이 저를 2019년 상반기에 새사람사역팀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새사람사역팀에서의 섬김이 순탄하지 않았

다. 딸의 산후조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순남 권사의 마음에서 새사람사역팀이 떠나지 않았다.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새사람사역팀을 섬겨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연히 새가족사역팀과 새사람사역팀을 함께 섬기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새사람사역팀의 회계로 섬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따놓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었고, 20대 시절 회계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간사님을 매일 찾아가 배웠습니다. 새사람사역팀 회계로 섬기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새사람사역팀에서 쓰임 받기 위해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순남 권사는 새사람사역팀에서 열심을 냈다. 그렇지만 사역이 녹록하지는 않았다.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처음 만나는 재소자 중에 경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터 상처주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지난해 가을 저와 연결된 두 명의 재소자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겠다’, ‘교재를 버리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마음이 힘들던지 마무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남 권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과 함께!

다 타고, 무너지고, 생명도 잃고... 그 아픈 눈물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잿빛이었다. 진짜 다 타고,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 현장은 정말 참혹하고 끔찍했다. 지난 3월 22일(토)부터 열흘 가까이 이어진 경북 산불이 가져온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그 크고 무서운 산불을 겨우 진화했더니, 이제는 검게 그을린 깊은 상처가 드러났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 푸르던 숲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의 눈물이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아픈 눈물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야 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가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그들과 동행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찾아가는 길부터 쉽지 않았다. 거리도, 교통편도 그리고 마음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을 찾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그 푸르던 곳이 온통 검게 그을렸다. 모든 것이 검고, 노랗고, 잿빛으로 변해있었다. 석보면 포산리마을은 정말 처참했다. 검게 탄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전소된 트럭도 보였다. 검게 탄 트럭 위에 놓인 흰 국화꽃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산에서 불덩이가 날아와 마을 구석구석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불길을 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논 한가운데로 모였겠습니까? 대피할 공간이 없어서 땀 뚝뚝 눈이 안전할까 싶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떨었다. 산불은 5분 만에 8km를 달려와 모든 걸 집어삼켰다. 발전기와 통신장비마저 망가뜨려 전기도, 전화도 끊겼다.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됐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불길이 차를 넘어 다니더라고요. 연기가 가득해서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참말로 여기서 죽는갑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옆 동네에서는 길에 갇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기가 찰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분명 희망이 살아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드리운 현장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가 파견한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의 위로와 헌신이 주민들에게 위안이 됐다. 온누리교회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은 NGO 더멋진세상과 대학청년부 5개 공동체에서 모인 청년 10명이다. 지난 3월 30일(일) 대학청년부 주일에 배에 긴급구호팀 모집 광고를 내자마자 청년들이 발벗고 나섰다. 하루 만에 긴급구호팀을 결성했다. 이기세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조달팀장)는 잠시 생업을 내려놓고 긴급구호에 뛰

어들었다.

“경북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도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긴급구호팀원 모집 광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의 하루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식사팀이 나섰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식사 배식과 배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날 즈음인 새벽 5시 30분부터는 안내팀과 조달팀이 도시락 포장과 배식을 했다. 주민들의 식사가 끝나도 쉴 틈이 없었다. 설거지와 다음 식사를 곧바로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청년들은 틈틈이 회의하며 이재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그 아름다운 청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식사팀 이호준 형제(SNS청년부, 식사팀장)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피난처에 계신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의식주 해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주민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 4월 3일(목) 아침 일찍 식사 배급을 마치고 긴급구호 물품을 포장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옷가지를 담았다. 기독교 마을공동체 보나콤(대표: 강동진 목사)에서 준비한 양말과 속옷, 수건, NGO 더멋진세상에서 지원한 트레이닝복 2천여 벌을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함께 담았다. 긴급구호품은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마을회관과 체육관, 교회 등지를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 이하용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안내팀장)는 경



긴급구호팀이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위한 식사준비와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북 산불 긴급구호팀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다.

“경북 산불 긴급구호 팀원들이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것처럼 손발이 정말 잘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팀이 만들어졌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의 마음이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었던 주민들이 서서히 미소를 보였다. 한 사람 두 사람 미소가 번지더니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만개했다. 따뜻한 밥 한 끼, 건넨 옷 한 벌,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덕분에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미소를 되찾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용기

를 얻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포산리마을 주민 한인숙 씨는 다 타버린 논밭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었지만, 긴급구호팀의 따뜻한 밥 한 끼에 위안을 얻었다.

“우리 동네는 딱 두 집 빼고 다 타 버렸습니다. 전기와 물마저 끊겨서 꼼짝없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농사철인데 논밭과 농기구가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경북 산불 긴급구호팀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배도 채우고, 텅 빈 마음도 채웠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비친 산불 피해 현장은 말 그대로 참혹 그 자체였다. 그래도 누군가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면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희망을 되찾았다. 분명 희망이 살아 있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이어진다면 다시 생명이 움트고, 그 푸르던 절경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면허 '말씀 묵상'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배운 의사소통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어줄 준비가 된 것이다. 부모가 따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면허는 '말씀 묵상'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40여 년 되었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지도 40여 년 됐다.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훈련시켜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돌아봤더니 말씀 묵상은 내 인생에서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다.

말씀 묵상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운영하는 부모학교를 수료한 분 중에도 말씀 묵상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어머니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했던 일기장을 버렸다고 했다. 시댁의 만행이 담긴 그 일기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고 싶었지만, 일기장 대신 말씀을 물려주고 싶어졌다고 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어머니도 남편을 고발하는 일기장을 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말씀 묵상은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학부모 역할에 집중하느라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곤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관계가 좋

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부모 면허가 의사소통 기술이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모 면허가 '말씀 묵상'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잘 다져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말씀 묵상은 부모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 삶은 기차와 같다. 기관차가 앞에서 힘

복해서 읽고, 기록하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한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힘을 얻는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잠 8:34, 새번역).

〈잠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기도 응답과 축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

이다. 부모가 말씀 묵상의 삶을 실천하며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면, 자녀도 그 귀한 습관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에게 복이 있다. 부모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배우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는 것이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11편 감정, 생각, 상황 올바른 우선순위 세우기'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자!”

차게 달리면 뒤따르는 객차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우리 인생도 기관차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야 한다. 기관차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 생각, 상황을 기관차 자리에 앉히고 인생을 끌고 가려 할 때가 많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상황이 앞설 때 흔들린다. 사탄은 이때를 노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시험을 주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한다.

〈시편〉1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는 행통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 묵상'이란 무엇일까? 말씀 묵상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내면 깊이 새기고 깨닫는 것이다. 소가 풀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며 영양을 흡수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받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예수님이 하실만한 일을!”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우다가 경찰을 불러서 큰일이 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했었다.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는데 자주 그때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친구들이 싸우던 그 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았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라면 친구들을 말리고 화해시켰을 것 같다. 그때 나도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말렸지만 잘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아직도 서로를 보기만 하며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 친구들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은 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실만

한 일을 하는 내용이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제일교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나고 묻는 장면이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주는 것이다. 그 일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앤젤트리와 비슷한 것 같다.

노먼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실천하기 위해 신문에서 술 광고를 빼고, 주일에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사가 망하고 있었는데, 노먼 사장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버지니아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 다른 교회와 단체들도 성금을 모아 신문사를 후원했고, 더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 더 크고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 나도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소외된 이들을 만나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만한 일을 할 것이다.

김시우 학생
(서빙고 초등2부)

87. 바라보면 닮아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간대요.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도 닮아가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닮아간대요.



우린 안 바라봐도 닮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닮아가겠지요?



인물의 주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히 12:2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2~3일
본문 '민 8:16~19', '민 9:10~14'

1.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나요?(민 8:19)

- 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신 받았다
- ②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다
- ③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성경을 가르쳤다
- ④ 전쟁 준비를 위해 훈련했다

2.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민 9:11)

- ① 과일
- ② 누룩 없는 빵
- ③ 양고기
- ④ 쓴 나물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1532호 정답자: 이희찬(부천 유년2부), 오창빈(서빙고 유년1부)

맛있는 말씀 해설

“...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계 1:4)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계 1:4).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표현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역사 전체를 꿰뚫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신 것과 연결된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 머

여있는 신이 아니라 어제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전에도 계셨던’ 과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된다. 과거의 하나님은 실패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다.

둘째, ‘앞으로 오실’ 미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은 기괴한 환상과 이미지로 가득한 불안한 미래

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는 책이다.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린양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다. 미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지금도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강조한다. 보통의 시간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이다. 그러나 성경(말씀)에서는 현재의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구원, 미래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큰 의미를 잃고 만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사람

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확증한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연습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황신연 목사
(서대문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

4월 7일~4월 13일
<민수기> 11:1~13:33

목상포인트

1: 광야는 불편한 곳이고, 부족한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한다. 하



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원망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광야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신다. 모세의 기도로 불은 꺼지지만, 탐욕을 품은 이들이 불만 여론을 퍼트리자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며 불평을 쏟아낸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지도자 모세가 힘들음 호소하자, 하나님이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장로 70명에게 임해 그들도 예언한다. 하나님이 수많은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신다. 욕심이 가득한 백성이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줍는다. 진노하

신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니 많은 백성이 죽어 그곳에 장사된다. 그곳의 이름은 ‘기브롯 하타아와’ (탐욕의 무덤)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큰 죄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뜻과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한 두려운 진노에 대해 묵상하자.

▶모세가 구스(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며 리더십에 도전한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모세가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에서 격리시킨다. 이스라엘 자손은 멈추었다가 미리암이 들어온 이후에 행진한다.

목상포인트 3: 같은 곳을 보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조상 적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곳을 정탐한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명의 보고가 믿음의 관점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바란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

게 하신다. 모세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히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당부한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다. 그들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주민은 강하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있으며, 성읍은 견고하다고 보고한다. 갈렙은 동요하는 백성을 진정시키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며 믿음을 준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인족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며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 준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반영한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고치고 감사의 언어를 훈련하자. ▶지도자의 고충을 헤아려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와 일터,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자. ▶식탐을 비롯해 육신의 모든 욕구는 경건함과 멀어지게 만든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자족하며 절제하길 힘쓰자. ▶지도자에게 큰 잘못이 없다면 리더십을 흔들며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편에 서자. ▶나는 육신의 눈을 가진 자인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인가?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의 휴대폰 연락처에 제가 ‘사랑하는 딸’로 저장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소를 찾아오신 아버지 친구들이 “이 사람이 딸 사랑을 그렇게 했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버지가 입바른 소리를 하는 저를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사랑에 갈등을 느끼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야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남은 우리 가족에게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소통을 연습하며 노력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못다 한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부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김재연 권철(양천공동체)

이웃과 사랑 나누고, 환경 보호하고!

이웃사랑팀, 어르신 50가구에 공기정화 식물 전달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했다. 지난 3월 30일(일)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50여 가구를 찾아가 교제하고, 공기정화 식물을 전달했다. 공기정화 식물 전달은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 실천의 일환이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선물을 묵상하고, 지키는 방안으로 준비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봉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혜 자매(브릿지공동체)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면서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



이웃사랑팀이 독거어르신 집에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회에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독거 어르신 방문 봉사를 하고 있다. 지역상품권과 사랑의 상

자 전달, 식사 섬김, 집수리 등을 한다. 동역을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9802-239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4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상반기 개강을 한다. 4월 8일(화)부터 6월 10일(화)까지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을 제공한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22년부터 시작됐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PS)’ 개교 및 학생 모집

4월 30일까지 1차 원서접수, 4월 19일 오픈하우스

성경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국제 대안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에서 4월 30일까지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원서접수는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하면 된다. 오는 8월 개교 예정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의 환경과 시설, 커리큘럼 등을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4월 19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있는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5~8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에서는 향후 미국 ACSI가 발급하는 3~4년 과정의 정식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2026년 개설할 예정이다.

문의: admissions@seoulprovidence.org

4월 화요성령집회 ‘His Pla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4월 화요성령집회가 ‘His Plan’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4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8일 최대홍 목사 ‘하나님의 선택, 예수’(사 9:1~7), 15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롬 5:1~11), 22일

이서진 목사 ‘하나님의 승리, 부활’(행 3:1~10), 29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소원, 선교’(고후 5:11~2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화요성령집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창조과학 봄탐사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봄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토)부터 5월 18일(일)까지 1박 2일동안 태백시 구문소 통리계곡 고생대 박물관, 삼척시 대금굴 단구지형을 돌아보며 창조신앙을 공부한다. OBC 1화점을 인정해 준다. 참가신청은 5월 12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문의: 010-3334-2388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1 양재 금요일오전반 모집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1 양재 금요일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과 현장강의(비전홀B)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10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5757-3427

와이무슬림 양재 토요일오후반 모집

와이무슬림 양재 토요일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17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302-3482

약물 중독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미션로그, ‘미국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 편’

CGN 미주지사에서 제작한 한인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미션로그’ 3~4편(연출: 주재후, 구성: 민지혜)이 공개됐다. 이번 편 주인공은 미국 나눔선교회를 섬기는 한영호 목사다. ‘미션로그’는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영호 목사는 29년째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서 한인 약물 중독 청년들과 생활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영호 목사도 한때 심각한 약물 중독자였다. 감옥과 재활치료원에도 들어갔지만, 마약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미션로그’ 3편과 4편에 담았다.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5월 26~27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교회의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하는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5월 26일(월)과 27일(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막 오른다. AI와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미래 교회의 목회 전략을 모색하고, AI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미디어 사역에

대한 알찬 강의와 세미나가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5월 7일(수)까지 신청하면 참가비 40%를 할인해 준다(정가 10만 원).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2-3275-9372



/ 홍하영 기자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20일과 27일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4월 20일(일)과 27일(일) 한다. 서빙고, 양재, 부천,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양지온누리교회는 4월13일(일)과 20일(일)에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 양지는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인천, 강동, 남양주는 교회 내 지정 장소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 수가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굿월스토어에서는 성도들이 모아준 기증품을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의: 1533-0091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4월 6일과 13일 오후 8시 온라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이 4월 6일(일)과 13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010-3929-6793)로 신청하면 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한 성도가 대상이다. 이번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수

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아직 양육 경험이 없는 양육자 재교육이 목적이다.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 1, 2’, 13일 ‘예수 그리스도 3, 4’과 목을 김요성 목사가 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 1, 2, 3, 4는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정식 과정 2~3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문의: 010-3929-6793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 서빙고 화요저녁반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 서빙고 화요저녁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동아 쇼핑센터 312호(구 302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29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세계관학교(심화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중동 분쟁과 그 해결점 모색’,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보는 영화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080-1067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온누리교육선교학교 참가자 간증



/ 심하늘 집사(과천의왕공동체)

교육 선교사로의 부르심

공동체 장로님과 점심 식사에 대한 ‘밥값을 하자!’는 생각으로 온누리교육선교학교(이하 교육선교학교)에 참가했다. 20년 전, <신명기> 쉼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고, 신앙 가문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홈스쿨을 선택했다. 홈스쿨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이 홈스쿨이 ‘시간적 선교사’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었다. 나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소명은 차세대 교사 자리를 지키는데까지 확장했다.

나는 지금 양재온누리교회 과워웨이브 교사로 섬기고 있다. 새로 만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때쯤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세대와 전혀 다른 차세대들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말, 지역교회와 비교해서 차세대들이 자주 모일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한계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 마음을 나눴다. 그러고는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교육을 통해 자녀 돌봄과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공동체 겨울방학특강을 기획했다. 교육선교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계획했던 겨울방학특강

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시고 주신 기회라고 느꼈다.

신앙이 연약한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라는 사역이 지역 교육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했다. 지난 2월, 3주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3~5시까지 겨울방학특강을 진행했다. 유치, 초등, 중등 자녀 15명이 함께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었을 때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육선교학교를 마치며 꿈을 구체화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셨다.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되고, 예배를 세워가는 배움의 공동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와 학교를 만들기를 꿈꿨다.

“하나님! 교육선교학교를 수료하며 교육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교제와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것을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평택 와이미션 3기 수료 간증



/ 복선희 성도(평택온누리교회)

선교는 ‘일상 속 작은 순종’

나는 신청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신청이 된 ‘기적’으로 와이미션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무겁게만 느껴졌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의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7주 동안의 동행을 통해 선교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거룩한 여정임을 깨달았다.

와이미션 첫 번째 강의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선교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다’라는 주제 강의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이 외에도 선교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가 만나는 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필독서였던 <산비>에 나오는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일기와 편지에 담긴 고백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다. 그 덕에 나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 여정임을 배웠다.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며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막연한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과 나누는 따뜻한 신앙의 대화, 그리고 일터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다. 앞으로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 가족,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로 살고 싶다.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순종’이라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간증



/ 조련미 성도(양지온누리교회)

나는 한국어 선교사!

나와 한국어 교사의 인연은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곳에서 입양 온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한국어 선교사로 준비시키신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와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를 얻었다. ‘영혼 구원’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최대 과업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뺏어주신 열매들을 경험했다.

첫 번째 열매는 서남아시아 A국에서 온 난민 가정 ‘H’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큰딸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 아이들은 기도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싫은 모습이 역력했는데, 점차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잘 참여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 사진과 ‘선생님 행복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의 가랑비에 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열매는 중국에서 온 학생이다. 그의 부모님은 조선족 선교사였는데 3년 전 연이어 소천하셨다. 그는 지금 조선족인 외할머니와

대구에서 살고 있다. 그의 신분상 학교에 갈 수 없어서 나와 줌(ZOOM)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전부였다. 처음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입만 보여주며 공부하던 친구가 이제는 중국어로 마무리 기도까지 한다.

세 번째 열매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사는 23세 청년이다. 장래 꿈이 목사인 그는 한국어를 배워 방글라데시에 오는 한국인 사역자를 돕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의 수업 과정이 쉽지 않았다. 버스가 만원이라 타지 못해 몇 시간 후에야 접속할 때도 있었고, 무슬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열심이 참 특별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그는 나와 수업 이후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방글라데시 또래 친구들을 가르치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방글라데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한다. 나는 늘 이주민들이 읽는 첫 번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외친다.

“나는 한국어 선교사다!”

58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유민준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

사실 젊은부부학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그분의 때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것임을 매주 깨닫고 그 감사를 고백한다.

지난해 청년부의 양육 시즌이 마무리되고, 둘째 아이도 18개월이 되면서 새롭게 소속될 성인공동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크게 아파 병원 신세를 오래 지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신혼 초와 달리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부간의 소통이 많이 준 것을 느꼈다. 큰 갈등이 있을 때는 크게 다투고, 작은 갈등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봉합하지 않은 채 미뤄두기 일쑤였다.

그런 과정에서 감정 표현이 적극적인 나는 아내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미숙한 아내가 때로는 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한 달 내내 토요일 오후를 온전히 함께 보내

며 부부관계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다. 그리고 건설적인 미래를 생각했다. 젊은부부학교의 숙제를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사랑의 탕크도 꽤 채워진 것 같다. 무엇보다 잠시 잊고 지냈던 ‘거룩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재 마주하는 도전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부가 한 몸으로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이다. 우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가정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구할 것이다.

젊은부부학교를 섬겨주신 스태프분들과 조장님께 감사하다. 우리 부부는 정말 따뜻하고 웅숭하게 대접받으며 그 헌신에 크게 감동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배려(配慮)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Acts29 비전빌리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배려의 나무’라는 이름을 붙인 나란히 선 두 그루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다. 예쁜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소슬바람에 일렁이는 금빛 나무는 멀리서 보면 한 그루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두 그루다. 두 나무는 높이 가지를 치며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서로 맞닿는 쪽은 짧고 가늘며 덩성덩성 가지가 나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두 나무가 서로의 그늘에 가려진 쪽 성장이 더딘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님 눈에는 옆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안 되려고 서로가 그쪽 가지의 성장을 억제하는 ‘배려’로 보신 것이다.

배려에 관한 일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전에 내 가까운 친구가 섬에 사는 고교동창생 집을 방문했다. 그 동창생이 식탁에 고춧가루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백김치 수준의 허연 김장김치를 내오면서 말했다.

“올해 우리 섬의 고추 농사가 안되어서 이렇게 먹어.”

그 집은 염전을 하는 넉넉한 집인데도, ‘다들 못 먹으니 우리도 안 먹는다’는 불편함을 같이 지고 가는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배려는 큰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추운 겨울 좌석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70대 부부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차에 오르며 내 앞 좌석 창 쪽으로 앉는 것을 보고, 아내를 먼저 태우지 않는 데다가 아내를 안쪽으로 앉히지 않고 자기가 앉은 그 뒤통수가 알미웠다. 그런데 버스비 결제를 하고 뒤따라온 아내에게 자리를 비켜앉으며 “자리 데워놔어.

어때? 따뜻하지?”라며 웃는 것 아닌가? 순간 그분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동물의 울음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독식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여느 짐승들과 다르게,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부르는 울음소리다. 녹명(鹿鳴)이라고 한다. 녹명은 함께 살고자 하는 따뜻한 이웃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

또 떠오르는 일이 있다. 20여 년 전 일이다. 산을 좋아하는 교우 5명이 한라산 등산을 했다. 계절에 따라 일출 전 하산을 고려해서 정상까지 2.3km 아래에 있는 통제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자꾸 뒤로 처지더니 결국 통소를 못 하고 그 자리에서 하산해야 했는데 혼자 내려가게 할 수 없으며 한 분이 자원해서 같이 내려갔다. 정상이 바로 저기 보이는데 말이다. 그날 산에 오르기 위해 딱딱한 마룻바닥 3등 선실에서 자던 새우잠이 얼마나 불편한 밤이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버르던 남한 최고봉 산행이던가!

한자의 배려(配慮)는 짝(배우자) 배에 생각할慮를 쓴다. 곧 배우자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아니라 내가 내려갔어야 했었다. 그분은 한라산이 초행이고 나는 두 번째 산행이니 말이다. 내가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더 비웠어야 했는데, 내 안의 미숙한 욕심이 배려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배려는 내가 불편해야 한다. 자기희생이 따라야 한다.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분과 나의 차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려(慮)가 아닐까?

조카 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는 바보스러운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지 않는가? 그때 내려가는 그분의 뒷모습이 한라산보다 커 보였다. 정상에 다가가수록 점점 더 초라해지는 내 모습과 비교되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기억이다.

하나님이 열어드신 문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도가 어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계 3:7)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 권사와 함께 안양에 있는 ‘갈산경로당’을 찾아가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도왔다. 김장해드리고, 된장과 간장도 담가드렸다. 10개월을 섬기면서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다락방 지체들의 도움으로 잔치도 열었다. 그야말로 천국 잔치였다.

경로당 사역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아웃리치팀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오산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준비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평택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다. 성도들과 전도하는 방법을 실습하면서 실제 현장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실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음료수와 비스킷 등 전도용품을 활용한 노방 전도를 준비했는데 비가 쏟아져 마을회관으로 갔다. 어르신들이 우리를 환영했다. 그덕분에 복음도 전하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도 해 드렸다. 그다음 주에 몇 군데 마을회관을 다녔는데 모두 반응이 좋았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행복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하나님 봤어요?”하면서 못마땅한 듯 질문하셨다. 나는 얼른 솔직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칭찬부터 했다. 그리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게 아니지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

지만 살아계세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 말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지!”라면서 맞장구를 쳐 다들 웃었다.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어르신이 “하나님이 계시면 악질들은 왜 안 잡아가요?”라고 두 번째 돌직구를 날리셨다. 나는 “맞습니다. 아이를 유괴해 성폭행하고 죽이는 죄질이 나쁜 사람을 보고 ‘벼락이라도 맞아 죽게 하든지’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1층과 100층은 아래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똑같아요. 죄도 마찬가지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립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전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다.

여주에 갔을 때는 성령님이 ‘주여 삼창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어쩌나 망설여졌다. 그 순간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에 순종했던 빌라텔 피아교회가 생각나서 나도 순종하기로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를 몰라보고, 말도 할 줄 몰라 답답한 게 있으면 무조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파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처럼 어르신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해 봅시다!”

어르신들이 천장이 뚫어지도록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곳에 계시던 두 어르신이 교회에 당장 나오겠다고 목사님께 약속도 하셨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열어놓으신 곳으로 걸어간다.

선교사 편지

이재환 선교사
(컴미션 국제대표)

이재환 선교사입니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이르러 온누리교회와 함께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깊은 감사의 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온누리교회와 함께 한 선교는 1985년 교회 창립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창간한 잡지 <빛과 소금>의 첫 선교지 소식이 제가 사역했던 감비아(서부 아프리카,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Roots)>가 쓰인 나라, Amazing Grace의 작사자인 노예 선장 John Newton이 노예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창간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는 1983년 영국에서 만나서 함께 WEC선교부에서 MOC(Missionary Orientation Course)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링교회 개척 당시 감비아로 떠나기 전 함께 목회에 동역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온누리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며 감비아에 갔고,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생의 동역자로 일했고, 받은 은혜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1999년 5월, 15년 감비아 사역을 마치고 현재 ‘Come Mission’ 선교단체의 부름으로 국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3년과 떠나신 이후 2년을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가장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

훈련과 파송 그리고 전략에 따른 돌봄과 인도하는 선교’를 실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평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천1만’ 사역의 큰 그림을 그렸던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적 열정은 선지자적 열정이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Acts29 비전’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광야의 영성으로 여기며, 연어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난 곳으로 되돌아가듯, 사도행전적 교회로 회귀하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라는 세상적 시간의 잣대로 선을 긋고 있지만, 선교사는 은퇴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선교 전선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선교적 종말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The kingdom Come’의 실현과 ‘마라나타’의 선교적 숨쉬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이라는 시간의 테두리를 느끼며 평생 선교에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헌금 해주시고 돌봄 주신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글로라도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옳은 줄 알아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Come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에 지역본부부를 두고 29개국에 1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를 공동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인 이주열 군은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레바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돌봄의 회복사역 핵심감정 성경적 상담 트라우마 애도와 돌봄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미디어 중독 현대인의 불안 교회 상담실 운영의 실제 전인치유 조이워십

목상을 통한 영적 돌봄 성경적 상담 부모 참여 놀이 아동 상담 내적 치유학교 상담실 투어 목상 기도회 시연 뇌신경 과학에 기반한 관계 기술 훈련

2025 회복축제

온전함



2025.5.14(수) - 16(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정신건강과 회복 정서적 건강과 치유 부부 및 가족 관계 회복

교회 상담실과 사역 미디어와 현대사회 문제 영적 돌봄과 목상

놀이치료와 아동 상담 기독교 상담과 심리학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성경적상담과 상담사역의 실제

| MAIN SPEAKERS |



고병인 교수
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채규만 교수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호선 교수
송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남윤영 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류경숙 박사
강남GEM아동가족상담 센터 소장



박상미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

- 주최 : 온누리교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
- 회비 : 70,000원 (사전 등록 시 50,000원, 사전등록 마감 4/30(수))
하나은행 573-910004-30205 (예금주 : 온누리교회 회복세미나)
- 접수 : 홈페이지 www.onnuri.org에서 신청 / QR코드 (문의 02-3215-3268, 010-7920-6747)
- 문의 : 02-3215-3532 (화~금, 주일 오전 10:00-오후 5:00)



참가신청